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김동직 ·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기를 고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독립된 실체로 간주한다. 그에 따라 서구의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성숙의 필수적인 구성 요인으로 개별성(individuality), 자율성, 독립성, 성취 동기 및 정체감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일반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관계성은 나약하고, 심지어는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개별성과 관계성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직교적인 개념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별성과 관계성을 독립된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자들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단일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가정하에 개별성-관계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개별성과 관계성은 .21의 정적 상관($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별성과 관계성은 자기 존중감과 각각 .42($p < .001$), .39($p < .001$)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의존성은 개별성과만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75, p < .001$). 고독감과 개별성의 상관은 $-.39(p < .001)$, 고독감과 관계성의 상관은 $-.67(p < .001)$ 이었다. 개별성과 관계성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4개의 집단을 구성했을 때,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한 관계망 속에 편입되어 일생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목표 추구, 사회적 성취, 여가 생활 등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는 물론이고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보이는 개인의 정서적 경험조차 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인관계란 인간 실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타인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확대시켜 나간다. 최근에 Baumeister와 Leary(1995)는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개관하는 논문에서 '소속감 가설(belongingness hypothesis)'이라는 개념을 통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구(need)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시적 소망이나 동기와 달리 이러한 요구(need)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양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추구하는 경향과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는 행동들은 그만한 생존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화해 왔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Ainsworth, 1989; Buss, 1991; Guisinger & Blatt, 1994;

Hogan, 1975; 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물론, 그러한 경향이 유전적-생물학적으로 부여된 것인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획득된 사회적 동기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러한 동기가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이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인간의 삶에서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인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 인지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할 때 '관계' 범주를 핵심적인 표상 체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Fiske, Haslam 및 Fiske(1991)는 사람들이 자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인관계 양식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자기와 타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표상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와 무관한 타인들을 지각할 때에도 자동적으로 그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어떤 두 남녀를 부부 사이로 지각하느냐, 무관한 사이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에 대한 특성을 표상하거나 회상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두 남녀를 무관한 사이로 지각했을 때에 비해 부부 사이로 지각했을 때, 사람들은 두 남녀의 특성을 현저하게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dikides, Olsen, & Reis, 1993).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정보의 처리나 표상 및 회상 과정에서 '관계'라는 범주가 개인의 의식 밖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기 개념, 혹은 자기 이론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자기에 대한 서구의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은 개별화된 자기 개념, 즉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감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서구의 자기 이론가들이 '충격(be struck)'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듯이 자기(self)가 아무리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좀더

극단적인 표현을 인용하면, "대인관계 맥락으로부터 '순수한' 자기를 추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타인이 없으면 자기도 존재할 수 없다(Markus & Cross, 1990, p.576)". 사실상 자기 개념은 초기 발달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Mitchell(1988)은 자기와 타인의 변증법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경험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라는 매트릭스 안에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기 개념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것도 아니며, 자기 개념을 더 이상 통합된 단일체로 탐구할 수 없다는 데에 많은 이론가들이 동의하고 있다(Banaji & Prentice, 1994; Berscheid, 1994; Brewer & Gardner, 1996; Higgins, 1996; Markus & Cross, 1990; Markus & Wurf, 1987).

사람들이 매우 복잡한 자기 개념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표상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자기 지각과 인상 형성은 다소 독립적인 대인관계 요인으로 기능하는 인지적 사건으로 흔히 간주되어 왔는데, 이것은 행동 경향성을 개인의 일관된 내적 성향으로 간주하는 서구 문화권의 경향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Miller, 1984; Shweder & Bourne, 1982). 그러나 이 두 과정은 대인관계 맥락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두 가지 하위 영역 중 하나일 뿐이며, 대인관계 맥락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Baldwin, 1992).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기와 타인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특성을 표출하게 되는데, 상대의 특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조울 과정을 거쳐 표상된다. 사람들은 관계가 진행될수록 타인에 대한 인상을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인 형태로 세련시키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인상은 단순히 특성 목록을 요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Srull과 Wyer(1989)에 따르면, 한 상황(역할)에서 수행된 개인의 행동이 다른 상황(역할)에서 수행된 행동과 다르게 평가되어도 사람들은 그러한 차이를 조절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을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두 개의 도식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개념과 타인 지각 과정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대인관계 맥락에서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 또한 매우 역동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관계 도식(relational schema)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관계 도식은 자기 도식이나 역할 도식처럼 대인관계 맥락에서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기대되는 역할 행동을 수행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Baldwin(1992)에 따르면, 사람들은 세상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도로서 기능하는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인지적 구조에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대인관계 상황에서 예상되는 상호작용 패턴의 스크립트(a script for an expected pattern of interaction)도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스크립트는 유사한 대인관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형성된다(p.462). 관계 도식은 개인의 대인관계 경험이 지각, 해석, 저장 및 회상되는 방식을 탐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서 총체적이거나보다는 중간 수준의 주제(예;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행동, 권위의 행사, 자기 요구의 제시)에 적합한 접근으로 추천되고 있다. 관계 도식을 파악함으로써 관계 맥락에서 개인의 상호작용 방식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개인의 느낌, 동기 및 인지 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관계 도식 접근은 우울한 사람들이 타인과 맺고 있는 역기능적 관계 양식을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식 접근에도 몇가지 제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Baldwin(1992)이 지적한 대로 관계 도식을 규정하는 많은 부분들이 절차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적으로 규정된 역할 행동, 사회적 교환 규칙, 자기 제시 전략, 예절 및 규범 등은 개인의 대인관계 행동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지식들이지만 개인의 의식 밖에서 작용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 암묵적으로 적용하는 중요한 타인의 기준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안정되고 조리 있는 단 하나의 자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듯 관계 도식 또한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 유형에 따라,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간의 역동적 변화에 따라 인지적 접근 가능성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 도식 접근은 진행중이거나 안정된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하나의 관계 도식을 분석하여 여러 관계 유형에 걸쳐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상호작용 방식을 추론할 수 없다는 단점을 들 수 있다. 대인관계 도식은 자기와 타인을 고립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타인 관계의 일반화된 표상이라는 Safran(1990)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계 도식의 형성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절차적 지식들을 사용해 비교적 짧은 만남에서도 즉각적으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 그러나 관계가 진행될수록 첫인상은 서서히 수정되고 보완된다. 결국, 자기-타인 관계의 일반화된 표상이란 자기와 타인이 일정한 관계망 속으로 편입되는 순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때문에 관계 도식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개인의 상호작용 방식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 도식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도식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관계 변인'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계 변인이란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즉, 관계 변인이란 비교적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내적 성향이라기보다 자기와 타인이 공존하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그 특성이 잘 발휘되는 변인으로서 자기와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며 매개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성들은 개인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속성으로 지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지금까지 개인의 성향으로 간주되어 온 많은 변인들이 실제로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외향성-내향성 변인은 흔히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되지만 대인관계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특성의 존재조차 의식할 수 없다. 이외에도 지배성, 복종성, 우호성, 의존성, 주장성, 친밀성 등등 많은 특성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 변인'이라는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개인이 새로운 관계에서 어떤 상호작용 방식을 택할 것이며,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주된 행동 양식이 무엇일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관계 변인들 중에서도 개별성과 관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성(individuality)-관계성(relatedness)

대인관계를 연구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을 통해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을 도모하게 하거나, 역기능적 대인관계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인관계의 만족에 기여하거나 해가 되는 변인을 찾아야 한다. 대인관계 기능과 관련된 변인들이 많이 있지만 개별성-관계성 변인은 단순히 관계 특성을 묘사하는 차원을 넘어 관계에서의 만족이나 불만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핵심적인 변인인 것으로 보인다.

개별성과 관계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유사한 용어들과 더불어 매우 포괄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아주 넓게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개별성과 관계성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Woike, 1994). 개별성은 흔히 분리(separation), 개별화(individuation), 주도성(agency), 개성(uniqueness), 차별화(differentiation), 독특성(distinctiveness)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며, 때에 따라 상호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

계성은 우호성(agreeableness), 친화성(affiliation), 집단성(collectiveness), 연대성(communion), 소속감(belongingness), 연결성(connectedness)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은 독립과 자율 및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주장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하며,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관계성은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과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성과 관계성은 단일한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다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산업화된 서구의 토착심리학은 심리적 성숙의 필수적인 구성 요인으로 개별성(individuality), 자율성, 독립성, 성취 동기 및 정체감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Guisinger & Blatt, 1994). 이것은 자기(self)라는 개념을 탈맥락적인 성향적 속성(dispositional attributes)을 내포하고 있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해 온 서구의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다(Berscheid, 1994). 자기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속성을 획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차적 과제로 상정하게 된다. 더불어 분리(separation)와 개별화(individuation)를 최고의 성숙 수준으로 간주하는 남근중심의 정신분석적 발달 관점에서처럼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여성적이며 허약한 것, 심지어는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Guisinger & Blatt, 1994). 이것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한쪽을 취하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양극적 관점이다. 그러나 서구의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는 소외, 자기에, 끔찍한 고립, 공허한 소비 문화, 폭력, 여성과 소수 민족에 대한 평가절하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Guisinger와 Blatt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개별성과 관계성의 어느 한쪽을 희생해 다른 쪽을 강조하는

이론은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Cushman, 1990; Dolinger, Preston, O'Brien, & DiLalla, 1996, Helgeson, 1994; Sampson, 1988). 오히려 개별성과 관계성이 독립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할 때, 혹은 변증법적 균형 상태를 이룰 때 건강하고 성숙한 성격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Dolinger 등(1996)이 시사한 대로 개별성과 관계성의 균형잡힌 발달은 인생에서 부딪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암묵적으로 개별성을 성숙의 지표로 간주해 온 전통과 달리 적절한 관계성의 획득이 남녀 모두에게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 McAdams와 Bryant (1987)는 1200명 이상의 전국적인 표집에서 친밀 동기가 높은 여성들은 행복감과 생활만족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친밀 동기가 높은 남성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확실감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바드 대학을 졸업한 남성들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도 TAT를 통해 평가한 친밀 동기가 17년 후에 확인한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McAdams & Vaillant, 1982).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화로운 발달은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방식은 대인관계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상인과 소비자의 경우처럼 관계의 목적이 분명할 때는 상호작용 방식도 일차적으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서로의 정서적 개입 정도가 크지 않은 서열적 관계(교수-학생, 선배-후배)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역할 기대 행동이 상호작용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교류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역할의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동등한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은 개인의 관계 특성에 좌우된다. 그리고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서로의 행동 예측이 쉬어지며, 관계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때에도 점진적으로 개인의 관계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동하던 친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리

한 요구를 하거나, 관계를 지배하려는 행동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한다.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의 반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율해야만 한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을 반영하는 능력과 상황에 적합한 행동의 선택 폭이 넓을수록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점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어느 한쪽 특성만 발달시킨 사람에 비해 양쪽 특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킨 사람이 만족스러운 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은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관계 변인으로 정의하였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와 관련된 두 가지 서로 다른 전략일 뿐 그러한 동기 자체의 양극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관계 동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표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 동기가 더 높은 것도 아니며, 반드시 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개별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며,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독특성을 고수하기 위해 타인과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대인관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적이며, 확신에 찬 행동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확보할 수도 있다. 관계성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 양식을 표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타인지향성이 대인관계의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타인의 요구와 관계 없이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타인의 생활을 간섭함으로써 대인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성과 관계성은 본질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며, 대인관계 맥락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에 따라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거나 역기능적으

로 작용할 뿐이다. 개별성이 요구되는 맥락이나 그러한 특성을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개별성이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며, 관계성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근중심적인 전통적 정신분석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성과 관계성은 흔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개별성과 관계성은 반대되기보다는 거의 직교적인 차원에 위치하는 개념이라고 시사하고 있다(cf. Dolinger et al., 1996, p.1274). 개별성과 관계성의 직교가능성은 검증될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기 복합성이나 인지 복합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개별성과 관계성이 한 개인내에 독립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어떤 개인에게서 개별성이나 관계성이 지배적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내에 공존하는 두 가지 특성의 상대적 우세와 어느 한 특성을 요구하는 상황의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개별성이 낮은 사람도 필요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예; 부모, 선배, 직장 상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계성이 낮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하고 관계지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가능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별성과 관계성을 독립된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개별성과 관계성이 단일 차원의 양극단이라는 암묵적인 가정과 관계성보다는 개별성을 선호하는 서구의 문화적 풍토가 이러한 도구의 개발을 지연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을 개별성이나 관계성의 어느 한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보다 양 측면을 고려할 때 더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를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성이 높은 사람들은 고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성이 고독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개별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관계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거나 억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높은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관계 변인으로서 비교적 독립적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일차적으로 개별성-관계성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성 점수와 관계성 점수에 근거해 중앙치 분리법으로 4개의 집단을 구성했을 때, 각 집단이 개별성과 관계성의 높고 낮은 조합에 따라 자기 존중감을 비롯해 의존성, 신뢰성, 고독감 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개별성-관계성과 관련된 변인들

자기 존중감

자기 존중감(self-esteem)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전분야에 걸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자기 존중감이 아동의 성취 동기를 비롯해 배우자 만족,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적응은 물론이고, 자기 고양, 태도 변화, 내외집단 지각 등의 다양한 현상들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자기 존중감이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중감의 원천은 아직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즉,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완충 역할, 목표 추구 행동의 유지, 유능감 등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 자기 존중감의 역할은 꽤 분명히 추론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능 자체의 역동적 기제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예; 높은 자기 존중감의 역기능적 역할), 그러한 자기 존중감이 어디에서 유래하며, 어떻게 유지되는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Higgins(1996)는 자기 존중감을 마치 외향성이나 내향성 같은 안정된 성격 성향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 존중감은 어떤 동기적인 힘 그 자체라기보다 온도계처럼 자기 조절 기능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요약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p.1074). 자기 존중감의 원천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자기 존중감이라는 개념 자체도 단일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Tafarodi와 Swan(1995)은 자기 존중감은 능력(ability)에 대한 객관적

인 평가에 근거한 경우와 사회적 승인이나 수용에 근거한 경우의 서로 다른 자기 평가 기준에 따라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Leary, Tamber, Terdal 및 Downs(1995)는 사람들이 자기 존중감 자체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은 단지 '수용과 배척'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의 질에 대한 지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Higgins(1996)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 존중감이란 결국 대인관계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Leary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실험에 참가한 동료들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구성원으로 배척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유의미한 자기 존중감의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rewer와 Gardner(1995)도 자기 존중감은 개인적 자기 개념, 상호의존적(혹은, 관계적) 자기 개념, 집단적 자기 개념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유래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과 집단적 자기 개념은 특정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와 집단 소속감과 관련된 자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과 개별성의 상관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과 자율을 추구하며, 기꺼이 남과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별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 또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의 어떤 측면은 적어도 초기 유아기로부터 중요한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비롯해 일반적인 타인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자기 존중감은 개별성뿐만 아니라 관계성에도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의존성

의존적인 사람들의 핵심적인 동기는 양육적이며 지지적인 관계를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강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동기 자체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Bornstein, 1992). 또

한 애착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인관계와 어떤 형태의 의존성이 모든 성격 발달의 기본적인 행렬(fundamental matrix)을 구성하는 것 같다(Guisinger & Blatt, 1994). 사실상 누구도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으며,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밀한 상호의존을 통해 정서적, 물질적 지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유리한 생존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나 여성들의 행동 특성 중의 하나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의존성이라는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미숙하고 나약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정신병리에 취약한 성격 유형이나 성격 장애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의존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에 Pincus와 Gurtman(1995)은 의존성을 측정하는 여러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요인 분석하여 의존성이 다면적 구성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존성은 복종적 의존성(submissive dependency), 착취적 의존성(exploitable dependency), 애정 의존성(love dependency)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종적 의존성은 낮은 자기 주장성과 추종 행동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착취적 의존성은 타인의 평가와 거절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애정 의존성은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받으려 하며, 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를 반영한 요인으로 보인다.

Pincus와 Gurtman(1995)은 의존성과 자율성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의존성이 복합적인 구성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논리에서 의존성과 관계성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계성이 높은 여성들이나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의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은 의존성의 한 측면에 대한 과장된 지각일 수도 있다. 사실상 의존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의존성은 관계성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개별성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계성이 높은 경우에도 적절한 수준에서 개별성의 보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의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의존성의 하위 요인들과 어떤 관계를 보일지 알아보고자 한다.

신뢰성

신뢰성에 대한 태도는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개인의 추상적인 긍정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Holmes, Rempel, & Ashmore, 1989). 신뢰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상대의 부정적인 정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정적 정보를 상쇄시키기 위해 상대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를 보강하는 인지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Murray & Holmes, 1993). 이에 비해 불신은 이론상으로 지배성 요인과 적대감 요인의 복합된 반영으로 볼 수 있는데,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성으로 나타난다(Gurtman, 1992). 또한 불신은 사회적 부적응과 반사회적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tter, 1980). 신뢰와 불신은 개인의 과거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존중감의 기능처럼 일단 일정한 수준에서 형성되면 차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Katz와 Allport의 고전적인 실험에 따르면, 속임수를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예상치는 그 자신의 속임수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이 있었다(Markus, Smith, & Moreland, 1985에서 재인용).

의존성이 인간의 기본적 동기와 관련된 특성인 반면에 신뢰성은 개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 형성된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신뢰성은 사회적 적응의 지표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타인과 세상이 공정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타인과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대인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며, 그

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거나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사교적 상황에서 불안해 하고, 결국은 고독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별성과 관계성이 신뢰성과 어떤 상관관이 있을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신뢰성은 적어도 개별성보다는 관계성과 밀접한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성은 낮으면서 개별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와 세상이 독립적이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냉담하게 보이는 것도 불사하고 기꺼이 자기 주장적으로 행동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고유성을 고수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이자 세상의 공정성이나 타인에 대한 신뢰가능성 등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개별성은 신뢰나 불신과의 상관관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타인과 가까이 있으려 하며, 자기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전제해야 가능한 것이다. 개별성은 낮으면서 관계성만 높은 사람들 중에는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이나 배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계성과 신뢰성은 밀접한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 비 조 사

조사 대상자 및 조사 방법

개별성-관계성 척도 제작을 위한 예비 단계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대인관계의 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 121명(남 77명, 여 43명, 평균 연령 21.2세)에게 자신의 대인관계 특성을 서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의 양이나 서술 방식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으나, 보고서 작성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인관계 유형을 '부모형제 관계', '이성 관계', '동성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일반적인 타인 관계'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였다. 둘째,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이외에 '갈등 발생시 자신의 주된 대응 양식'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게 하였다. 셋째,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

는 점'이나 '고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밝히도록 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관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일반적인 타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질과 양 모든 면에서 가장 빈곤했다. '부모형제 관계'에 대한 내용은 개인에 따라 불과 대여섯 줄 정도에서 2장 이상에 이르기까지 양적인 차이가 매우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엄부자모'와 '화목·우애'라는 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성 관계' 역시 질적·양적 측면에서 개인차가 많았다. 진지한 이성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현재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의 내용에는 이성과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태도 변화 등이 잘 반영되어 있었지만, 진지한 이성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많은 관심(어린 시절의 추억담, '미팅'에서 만난 이성에 대한 인상, 막연한 기대감 등)에도 불구하고 이성 관계를 대체로 피상적인 수준에서 진술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대인관계 방식,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이나 갈등 해결 양식 등이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역시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였으며, 그 다음이 선후배 관계였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며, 따라서 가장 쉽게 표상할 수 있는 대인관계가 친구 및 선후배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유형별 내용 파악에 이어 학생들이 보고한 어려움과 갈등 및 대응 양식 등을 분석한 결과 '만족형', '불만형', '무관심형'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만족형은 대인관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갈등을 경험하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성장과 자기 세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인관계를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새로 알게 된 사람들의 유쾌한 특징에 대한 기술, 다양한 만남을 통한 간접 경험의 증가). 불만형은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형'과 '타인에 대한 불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불만형은 주로 사교성 부족, 지나친 타인 의식, 주장성의 부족, 갈등의 초래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타인-불만형은 믿었던 친구의 배신(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옛정을 망각한 친구에 대한 원망(개구리 울챙이 적 모른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혐오 등을 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비교적 낙천적인 만족형에 비해 불만형에 속하는 학생들 중에 의외로 인간의 심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무관심형도 비교적 다양한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무관심형은 말 그대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희박하며, 그것을 특별히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나는 어려서부터 혼자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더 편안하다; 나는 특별히 대인관계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성공이나 개인적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역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빈약한 편이었다.

문항 작성

내용 분석 과정을 통해 정리한 학생들의 반응을 앞에서 정의한 개별성과 관계성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문항화작업을 실시하여 개별성, 관계성 각 40문항씩 총 80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선정의 일차적 기준은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나타난 대인관계 행동 특성이 본 연구자들이 정의한 개별성-관계성의 특성과 부합하는가의 여부였다. 두 번째 기준은 개별성-관계성 특성과 부합하더라도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회소한 반응들이거나 누구에게서나 나타나는 반응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작성된 개별성-관계성 척도를 별도로 표집한 67명(남 28명, 여 39명)의 대학생들에게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67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1 이하인 7문항, 문항 평균이 2점 이하이거나 4점 이상인 13문항을 일차로 제거하였다. 남은 60문항(개별성-28문항, 관계성-32문항)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개별성 25문항, 관계성 25문항을 선정하였다. 새로 구성된 척도의 요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 3배수 표집(80문항인 경우 최소 240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차 문항 선별 과정에

서 요인 분석 결과는 적용하지 않았다.

본 조사

방 법

조사 대상자

서울과 인천 지역 소재 3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27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부분 응답자 5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73명(남 133명, 여 140명; 평균 연령 20.74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수업 장면에서 단채로 실시하였는데, 각 조사 단계에서 집단의 인원은 최소 45명에서 최대 124명이었으며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측정 도구

개별성-관계성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한 50문항을 무선적으로 배열해 각 문항이 자신의 특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자기 존중감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질문지를 사용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점수 분포 범위는 19점-50점이었다.

생활 만족감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 (1985)이 개발한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Cronbach's α 는 .81이었으며, 점수 분포 범위는 5점-24점이었다.

의존성 Pincus와 Gurtman(1995)이 의존성을 측정하는 여러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요인 분석하여 구성된 36문항의 의존성 척도를 본 연구에서 문항 분석 및 요인 분석을 통해 적합성이 높은 3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Pincus와 Gurtman의 척도는 복종성, 착취성, 애정의 3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인별로 각각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종성 요인은 낮은 자기 주장성을 내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착취성 요인은 타인의 반응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과 관련

된 내용들이다. 애정 요인에는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받으려 하며, 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반영한 문항들이 묶여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도 3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의 순서와 구조도 큰 차이가 없어 원칙도의 요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칙도와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에서 차이가 나는 문항은 2개 뿐이었다. "사교적 상황에서 나는 남들을 너무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항은 원칙도에서는 복종성 요인에 묶였던 문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착취성 요인에 묶였다. 그리고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은 원칙도에서는 착취성 요인에 속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애정 요인에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복종성 요인은 10문항, 착취성 요인은 11문항, 애정 요인은 9문항이었다(문항 내용 및 요인 구조는 부록 3 참조). 30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전체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α 는 복종성-.88, 착취성-.80, 애정-.78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 범위는 의존성 전체는 67점에서 126점이었고, 복종성 요인은 10-40점, 착취성 요인은 26-57점, 애정 요인은 14-44점이었다.

신뢰성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표집(남 77명, 여 71명; 성별 미확인 19명)을 대상으로 신뢰성과 냉소주의를 측정하는 Wrightsman (1974)의 'Philosophies of Human Nature 단축형'을 평가하게 한 후,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35 이상인 8문항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자들이 별도의 7문항을 추가하여 15문항의 신뢰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 분석 결과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12문항에 대한 점수를 신뢰성 지표로 삼았다(자세한 문항 내용과 요인 구조는 부록 3 참조).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12문항의 Cronbach's α 는 .76이었으며, 점수 분포 범위는 17점에서 50점이었다.

고독감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독감을 표현하는 9개의 문항과 소속감, 우정, 동료애, 친밀감 등을 표현하는 11개의 문항을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Cronbach's α 는 .89에서 .94 사이인데(Russell, 1996),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 범위는 21점에서 69점이었다.

결 과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문항 분석 및 요인 분석

전체 50문항을 개별성 25문항과 관계성 25문항으로 나누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한 결과, 개별성은 .82이었고 관계성은 .78이었다. 두 척도의 상관은 $r(273) = .06$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314$). 문항 평균의 범위는 개별성의 경우 2.44-3.99(전체 평균-3.05)이었고, 관계성은 2.41-4.27(전체 평균- 3.46)이었다.

부적절한 문항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평균이 2점 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없었고 4점 이상인 문항은 단 하나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문항-총점 상관인 .2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별성 척도에서 4문항, 관계성 척도에서 5문항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남은 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회전 요인 분석에서 고유근(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개별성 7개, 관계성 8개로 나타났으나 scree 검사 결과 각각 3개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개별성, 관계성 각각에 대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채택하여 varimax 직각 회전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에 묶인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과 communality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문항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35 이하이면서 두 요인 이상에 비슷한 부하량이 걸려 있거나, 요인 부하량과 communality가 모두 .3 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별성 3문항, 관계성 2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각각 18문항이 남게 되었다.

문항 제거 작업을 하기 이전의 50문항 전체를 두 개의 요인으로 지정하여 varimax 직각 회전을 시켰을 때, 본 연구자들이 관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했

는데 개별성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은 6개였으며, 반대로 개별성으로 가정했는데 관계성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은 4개였다. 그러나 상반된 요인에 묶인 10개의 문항 중 8개는 문항 분석과 요인 분석 과정을 통해 제거되었다. 문항 제거 후 남은 36문항을 다시 요인 분석했을 때, 첫 번째 요인에는 개별성 18문항과 관계성 1문항이 묶였고 두 번째 요인에는 남은 관계성 문항 17개가 모두 묶였다. 따라서 상반된 요인에 묶였던 남은 2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은 연구자들이 가정한 요인으로 다시 묶였으나 관계성으로 가정한 1문항("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쉽게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은 여전히 개별성 요인에 묶였다. 그러나 두 요인에 걸려 있는 이 문항의 부하량은 .19와 .16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통계 지표들을 고려할 때 개별성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관계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즉, 이 문항을 개별성 척도에 포함시켰을 때 19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α)는 .83이었고, 남은 관계성 척도 17문항에 대한 α 는 .80이었다. 이러한 α 값은 이 문항을 관계성 척도에 포함시켰을 때 나온 α 값(개별성 .84, 관계성 .81)보다 약간씩 낮은 것이었다. 또한 이 문항을 개별성 척도에 포함시켜 요인 분석했을 때, 이 문항은 개별성 척도의 제 3요인에 묶이면서 요인 부하량은 .36이고 communality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항을 관계성 척도에 포함시켜 요인 분석했을 때 역시 관계성 척도의 제 3요인에 묶이면서 부하량은 .57, communality는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남은 18문항 각각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개별성-.84, 관계성-.81로서 25문항에 대한 α 값보다 약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성과 관계성의 상관은 25문항을 분석했을 때와 달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273) = .21, p < .001$). 문항 평균의 범위는 개별성 2.98-3.94(전체 평균-2.98), 관계성 2.72-3.99(전체 평균-3.42)이었다. 273명의 개별성 점수 평균은 53.67(표준편차 8.87)이었고 관계성 점수 평균은 61.60(표준편차 8.58)이었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개별성-관계성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varimax 직각 회전) 결과 개별성은 3요인에 각각 6문항씩 묶였고, 관계성은 1, 2요인에 각 7문항씩, 3요인에 4문항이 묶였다. 개별성 척도의 각 요인에 묶인 문항들의 내용에 따라 1요인은 '자기 주장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2요인은 '타인 의식', 3요인은 '독특성 추구'라고 이름 붙였다. 관계성 척도의 1요인에 묶인 문항들은 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관계 형성'이라는 요인명을 부여했다. 2요인은 일단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교류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어 '관계 유지'라고 이름 붙였다. 3요인은 주로 타인을 위하고 이해하려는 내용들이어서 '타인 배려'라는 명칭을 붙였다(문항 내용 및 요인 구조는 부록 1, 2 참조; 개별성과 관계성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부록 5 참조).

각 척도에서의 남녀 차이

개별성 점수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남-54.49, 여-52.89). 그러나 관계성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남-59.19, 여-63.90; $t=-4.71, p<.001$). 또한 의존성 척도의 제 3요인인 애정 의존성에서도 남녀 차이가 발견되었다(남-32.69, 여-33.83; $t=-1.94, p<.05$). 그외에 자기 존중감을 비롯한 모든 척도에서는 어떠한 남녀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개별성-관계성 척도와 기타 척도의 상관 관계

표 1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개별성과 관계성의 상관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r=.21, p<.001$). 따라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직교성은 입증되지 못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자기 존중감과 개별성, 관계성의 상관관계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42, r=.39$). 만약 개별성과 관계성이 단일 차원상의 양극단에 위치하는 변인이라면 이러한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의존성과 개별성-관계성의 상관관계는 매우 흥미롭게 나타났다. 즉, 의존성 전체 점수는 개별성과만 강한 부적 상관($r=-.75$)이 있었는데, 의존성의 하위 요인들은 개별성-관계성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관계의 방향이 반대이기는 하지만 애정 의존성은 개별성보다는 관계성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존성이란 관계성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개별성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계성이 높은 사람들이 때로 의존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애정 의존성과의 상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은 개별성-관계성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관계성과 좀더 높은 상관을 보여 본 연구의 예상울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은 관계성과 강한 부적 상관($r=-.67$)이 있었으며, 개별성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39$).

표 1. 개별성-관계성 척도와 기타 척도의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1. 개별성									
2. 관계성	.21***								
3. 존중감	.42***	.39***							
4. 만족감	.26***	.29***	.55***						
5. 의존성(전 체)	-.75***	-.04	-.45***	-.24***					
6. 의존성(복종성)	-.73***	-.25***	-.61***	-.40***	.78***				
7. 의존성(착취성)	-.61***	-.12*	-.30***	-.17**	.81***	.48***			
8. 의존성(애 정)	-.23***	.37***	-.01	.10	.59***	.14*	.26***		
9. 신뢰성	.20***	.41***	.24***	.28***	-.12*	-.19***	-.20***	.17**	
10. 고독감	-.39***	-.67***	-.55***	-.46***	.31***	.48***	.37***	-.28***	-.41***

주: * $p<.05$, ** $p<.01$, *** $p<.001$, N = 273

그외에 고독감은 신뢰성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41$)을 보여 낮은 신뢰성이 고독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각 척도에 대한 개별성, 관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고려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독립변인의 허용지수(tolerance)는 최소 .73에서 최대 .95로 나타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변산 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역시 최소 1.05에서 최대 1.36으로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에 따라 세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생활 만족감은 오직 자기 존중감 변인만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 전체는 세 변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했지만, 개별성이 주된 설명 변인이었고 존중감과 관계성의 추가 설명량은 각각 2%와 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애정 의존성의 경우는 관계성의 설명량이 14%, 개별성의 설명량은 10%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의존성은 주로 개별성에 좌우되는 변인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표 1의 단순 상관 관계에 따르면 신뢰성은 개별성보다 존중감과 약간 더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회귀분석 결과 신뢰성에 대한 존중감의 설명력은 없었으며 개별성의 추가 설명량도 1%에 지나지 않았다. 고독감의 경우도 의존성 전체의 경우처럼 세 변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개별성의 추가 설명량은 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고독감은 관계성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합에 따른 집단간 차이

많은 연구자들이 개별성과 관계성은 단일 차원의 양극 변이라기보다 직교 변인이며, 두 변인의 조합으로 발달이 심리적 성숙 및 적응에 유리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시사해 왔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은 완전한 직교 상태를 이루지 못했지만, 두 변인

표 2. 각 척도에 대한 개별성, 관계성 및 자기-존중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R ²	ΔR ²	β	t
LFSA	존중감	.30		.55	10.75***
	개별성	.56		-.69	-16.61***
DPNT	존중감	.58	.02	-.24	-5.42***
	관계성	.62	.04	.20	5.06***
DPN1	개별성	.54		-.59	-14.87***
	존중감	.65	.11	-.36	-9.18***
DPN2	개별성	.38		-.61	-12.78***
DPN3	관계성	.14		.44	8.15***
	개별성	.24	.10	-.33	-5.99***
TRST	관계성	.17		.39	6.85***
	개별성	.18	.01	.11	2.01*
LONY	관계성	.45		-.53	-12.20***
	존중감	.55	.10	-.29	-6.12***
	개별성	.57	.02	-.15	-3.43***

주: 1. * p<.05, ** p<.01, *** p<.001, N = 273

2. LFSA-생활만족감, DPNT-의존성(전체), DPN1-복종 의존성, DPN2-착취 의존성, DPN3-애정 의존성, TRST-신뢰성, LONY-고독감.

의 상관이 .30 이하일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직교성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합에 따라 집단을 구성했을 때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우선, 개별성과 관계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4개의 집단을 구성했다(표 3 참조).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집단 1(82명)'에 속했으며, 개별성은 높지만 관계성이 낮은 사람들은 '집단 2(50명)',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낮은 사람들은 '집단 3(88명)', 개별성은 낮지만 관계성은 높은 사람들은 '집단 4(53명)'로 각각 분류하였다.

중앙치 분리 집단의 경우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 생활 만족감 및 신뢰성이 전체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독감은 가장 낮았다.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낮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고루 발달할 때 건강한 성격이 발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 개별성-관계성의 조합에 따른 집단 구성과 각 척도의 평균 및 변량분석 결과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전 체	F	p
개별성	높음	높음	낮음	낮음			
관계성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사례수	82	50	88	53	273	(3, 269)	
	38	20	37	20	115	(3, 111)	
자기존중감	40.45 c	37.02 b	33.06 a	36.68 b	36.71	24.94	.0000
	41.76 c	34.90 a,b	31.95 a	36.55 b	36.50	21.31	.0000
생활만족감	15.66 b	13.54 a	12.91 a	13.72 a	14.01	11.39	.0000
	16.37 b	11.55 a	12.81 a	13.65 a	13.91	13.46	.0000
의존성-전체	94.04 b	88.56 a	107.16 c	107.85 c	99.95	62.14	.0000
	90.08 a	87.15 a	109.85 b	112.15 b	99.77	53.88	.0000
의존성-1	21.32 a	21.04 a	29.49 b	27.32 b	25.06	56.13	.0000
	19.40 a	20.30 a	31.78 b	29.05 b	25.22	57.05	.0000
의존성-2	38.54 a	38.34 a	44.58 b	44.53 b	41.61	32.78	.0000
	37.03 a	39.60 a	45.35 b	46.00 b	41.71	25.29	.0000
의존성-3	34.22 b,c	29.18 a	33.09 b	36.00 c	33.28	22.42	.0000
	33.66 b	27.25 a	32.73 b	37.10 c	32.84	17.68	.0000
신뢰성	38.04 c	33.76 a,b	33.02 a	35.79 b,c	35.20	14.01	.0000
	39.74 b	30.15 a	32.08 a	36.65 b	35.07	17.92	.0000
고독감	36.87 a	47.96 c	51.19 c	43.00 b	44.71	48.22	.0000
	33.92 a	53.55 c	54.65 c	40.95 b	45.23	55.74	.0000

주; 1. 윗줄의 숫자는 중앙치 분리 집단의 평균치이며, 아래줄의 숫자는 양극 점수를 기준으로 분리한 집단의 평균치임.
2. 아래 첨자(a, b, c)는 Scheffe 사후비교 결과임.

집단 1과 집단 2는 자기 존중감, 생활 만족감, 의존성, 신뢰성 및 고독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고독감에서 가장 큰 폭의 차이가 났다. 표 4를 보면 집단 1과 집단 2는 개별성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관계성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독감을 설명하는 주된 변인은 관계성이었다. 따라서 집단 1과 집단 2의 고독감 점수의 차이는 관계성 점수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 1과 집단 4는 의존성 점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별성 점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 2와 집단 4는 의존성과 고독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의존성과 고독감을 설명하는 주된 변인이 개별성과 관계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집단에서 나타난 차

이 역시 개별성과 관계성의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집단간 차이와 각 척도간의 단순 상관 관계 및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관계성이 높아도 개별성이 어느 정도 높으면 의존성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성이 높아도 관계성이 보완되면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각 집단의 개별성-관계성 점수 변화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전 체	개별성	60.79	62.02	46.11	47.32
	관계성	69.15	54.54	54.91	67.72
양 극	개별성	64.79	63.85	42.81	44.45
	관계성	71.08	51.50	51.32	70.95
증감폭	개별성	+4	+1.83	-3.3	-2.87
	관계성	+1.93	-3.04	-3.39	+3.23

중앙치 분리법에 항상 뒤따르는 문제들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별성과 관계성 점수 상하 30%를 기준으로 집단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즉,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상위 30%에 속하면 '집단 1(38명)', 개별성은 상위 30%이고 관계성은 하위 30%에 속하면 '집단 2(20명)', 개별성과 관계성 모두 하위 30%에 속하면 '집단 3(37명)', 개별성은 하위 30%이지만 관계성은 상위 30%에 속하면 '집단 4(20명)'로 분류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중앙치 분류 방식과 양극 점수 분류 방식에 따라 집단간 차이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른 각 척도의 평균치 변화에 미묘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개별성과 관계성의 양극 점수에 따라 집단을 재분류했을 때, 개별성 점수는 집단 1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4), 관계성 점수는 집단 4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3.23). 또한 자기 존중감 점수는 집단 2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2.12), 집단 1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1.31). 개별성, 관계성 및 자기 존중감 점수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중앙치 분류 방식과 양극 점수 분류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각 집단의 변화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양극 점수로 분류했을 때 집단 2의 생활 만족감 점수는 -1.99의 변화를 보였다. 생활 만족감이 5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다른 척도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인은 자기 존중감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집단 2의 자기 존중감 하락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 점수 역시 집단 2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3.61). 신뢰성을 설명하는 주된 변인이 관계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집단 2의 관계성 점수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집단 2에서 나타난 고독감 점수의 증가는 자기 존중감과 관계성의 하락 모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독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세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은 각각 관계성 45%, 존중감 10%, 개별성 2%의 순서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성이나 관계성의 증가로 인한 적응

의 향상보다는 관계성의 감소로 인한 부적응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집단 4의 경우는 관계성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척도의 점수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자들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대인관계 맥락에서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매개하는 관계 변인이라는 가정하에 개별성과 관계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문항 분석과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각 18문항으로 구성된 개별성과 관계성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r=.21, p<.001$)을 보여 두 변인의 직교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이나 의존성, 신뢰성, 고독감 등과 두 변인의 상관 형태를 근거로 할 때 두 변인은 양극적이기보다는 직교적인 관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합에 따라 집단을 구성했을 때 나타난 명백한 집단간의 차이를 통해서도 두 변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두 변인의 관계를 좀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는 형용사 척도의 개발도 고려할 만하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단순히 대인관계 맥락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정의하며, 자기와 세상의 관계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포괄적인 인지적 구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 사용된 개별성-관계성 척도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제한된 대인관계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척도 제작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드러난 문제였었다. 예를 들어, '나는 주변 세계와 깊은 일치감을 자주 경험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들은 타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적합한 문항들로 탈락되었다. 때문에 비교적 동등하고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반영한 문항들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에 비해 대인관계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일차적인 문항 선정 자료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화로운 발달이 심리적 성숙의 조건이자 지표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화로운 발달'이라는 표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단순히 두 가지 특성이 높기만 하면 족한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을수록 수시로 변화하는 복잡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언제나 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을 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통합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다양성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은 모든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 우수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이 통합된 조직화의 결과인지 단순한 반응 경향성인지는 알 수 없었다. 대응 방식의 유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행동 관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가능한 한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반응 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나날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지속시킨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 우리들이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방식,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은 언제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 자체가 우리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유 방식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에 대한 욕망은 쉽사리 충족되지 않는다. 대인관계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을 통한 심리적 적응과 성숙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aldwin, M. W.(1992). Relational schemas and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61-484.
- Banaji, M. R., & Prentice, D. A.(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97-332.
- Baumeister, R. F., &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rscheid, E.(1994).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79-129.
- Bornstein, R. F.(1992). The dependent personality: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sychological Bulletin*, 112, 3-23.
- Brewer, M. B., & Gardner, W.(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Buss, D. M.(1991). Evolutionary personality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2, 459-491
- Cushman, P.(1990). Wh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5, 599-611.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1) 척도 제작 및 문항 구성과 관련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에서 드러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고려하여 현재 '개별성-관계성 척도'를 수정하고 있는 중임을 밝혀 둔다.

-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olinger, S. J., Preston, L. A., O'Brien, S. P., & DiLalla, D. L.(1996).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 Fiske, A. P., Haslam, N., & Fiske, S. T.(1991). Confusing one person with another: What errors reveal about the elementary forms of soci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56-674.
- Guisinger, S., & Blatt, S. J.(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 Gurtman, M. B.(1992). Trust, distrust, and interpersonal problems: A circumplex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989-1002.
- Helgeson, V. S.(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 Higgins, E. T.(1996). The "Self Digest": Self-knowledge serving self-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62-1083.
- Hogan, R.(1975). Theoretical egocentrism and the problem of compliance. *American psychologist*, 30, 533-540.
- Holmes, J. G., Rempel, J., & Ashmore, K.(1989). Trust in close relationship. In C. Hendric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 pp.187-220). Newbury Park, CA: Sage.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Markus, H., & Cross, S.(1990). The interpersonal self.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576-608). New York: Guilford Press.
- Markus, H., & Wurf, E.(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kus, H., Smith, J., & Moreland, R. L.(1985). Role of the self-concept in the perception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494-1512.
- McAdams, D. P., & Bryant, F.(1987). Intimacy motivation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in a nationwid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5, 395-413.
- McAdams, D. P., & Vaillant, G. E.(1982). Intimacy motiv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586-593.
- Miller, J. G.(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tchell, S. A.(1988). *Relational concepts in psychoanaly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urray, S. L., & Holmes, J. G.(1993). Seeing virtues in faults: Negativ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personal narrative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707-722.
- Pincus, A. L., & Gurtman, M. B.(1995). The three fac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Structural analyses of self-report dependency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44-75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ter, J. B.(1980). Interpersonal trust, trustworthiness, and gullibility. *American Psychologist*, 35, 1-7.
- Russell, D. W.(1996). UCLA Loneliness Scale(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 Safran, J. D.(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 Theor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07-121.
- Sampson, E. E.(1988). The debate on individualism: Indigenous psychologies and their role in personal and social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 43, 15-22.
- Sedikides, C., Olsen, N., & Reis, H. T.(1993). Relationships as natural categ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1-82.
- Shweder, R. A., & Bourne, E. J.(1982).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A. J. Marsella & M. White (Eds), *Cultural conceptions of mental health and therapy*(pp.97-137). London: D. Reidel.
- Srull, T. K., & Wyer, R. S.(1989). Person Memory and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96, 58-83.
- Tafarodi, R. W. & Swan, W. B., Jr.(1995).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322-342.
- Woike, B. A.(1994). The use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Empirical studies of "separate" and "connected" way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42-150.
- Wrightsmann, L. S.(1974).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Brooks/Cole.

부록 1. 개별성 척도의 요인 구조

문항	자기주장성 ($\alpha=.75$)	타인 의식 ($\alpha=.73$)	독특성 추구 ($\alpha=.65$)	h^2
* 나는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어렵다. (R)	.715			.529
* 너무 강한 주장을 해서 남의 배척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못이기는 체 따라가는 게 낫다. (R)	.627	.328		.502
*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남들이 반대해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624			.505
*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친한 사람들이 반대하면 계속하기가 어렵다. (R)	.596			.420
* 나는 친구들이 결정한 일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거의 그대로 따르는 편이다. (R)	.578			.366
* 나는 어떤 주제이든 내 주관대로 얘기해야 직성이 풀린다.	.550		.345	.429
* 나는 남들이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어렵다. (R)		.699		.569
*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다. (R)		.689		.582
* 나는 혹시라도 남의 오해를 살까봐 항상 조심한다. (R)		.621		.409
* 나는 남들에게 튀어보이는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다. (R)		.578		.343
* 나는 남들에게 건방지게 보일까봐 내가 아는 문제도 가능한 한 나서지 않는다. (R)	.339	.549		.463
* 성공의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남들의 평판이 좋지 않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R)		.448		.331
*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갖는 것이 나에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635	.495
* 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가 싫다.			.569	.329
* 나는 필요할 때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565	.385
* 나는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좋아한다.		.470	.541	.543
*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	.315		.521	.432
* 나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건전한 상호비판은 꼭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505	.291
고 유 근 (eigen value)	4.94	1.71	1.27	
설 명 량	27.4%	9.5%	7.1%	44.0%

주; 전체 Cronbach's $\alpha=.84$, (R) 표시는 역채점 문항, 요인부하량 .30 미만은 생략함.

부록 2. 관계성 척도의 요인 구조

문항	관계형성 ($\alpha=.74$)	관계유지 ($\alpha=.69$)	타인배려 ($\alpha=.53$)	h^2
* 얼굴을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사람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하다. (R)	.687			.478
*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은 가능한 한 멀리 하는 게 마음편하다. (R)	.648			.436
*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겪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R)	.638			.475
*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	.588		.469	.614
* 나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개인적인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 (R)	.558			.420
* 나는 남에게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하기가 왠지 어색하다. (R)	.533			.382
* 나는 가능한 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한다.	.484			.347
* 나는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구차스럽게 느껴진다. (R)		.694		.495
*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일일이 신경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 (R)		.687		.482
* 내 문제를 처리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R)	.354	.566		.481
*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생일은 꼭 챙기는 편이다.		.503		.367
* 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보내기를 좋아한다.	.413	.423		.351
*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성가신 일도 늘어난다. (R).		.419		.226
* 누가 나에게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하면 거부한 느낌이 든다. (R).	.334	.397		.284
* 나는 상대방의 얘기가 따분하고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준다.			.690	.492
* 때로는 친구들의 부탁이 귀찮게 느껴져도 우정을 생각해 대체로 들어주는 편이다.			.590	.429
*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쉽게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573	.335
*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565	.327
고 유 근 (eigen value)	4.31	1.65	1.46	
설 명 량	23.9%	9.2%	8.1%	41.2%

주: 전체 Cronbach's $\alpha=.81$, (R) 표시는 역채점 문항, 요인부하량 .30 미만은 생략함.

부록 3. 의존성 척도의 요인 구조

문항	복종성 ($\alpha=.88$)	착취성 ($\alpha=.80$)	애정 ($\alpha=.78$)	h^2
* 나는 내 판단을 아주 확신한다. (R)	.790			.627
* 나는 완전히 자신만만하다. (R)	.772			.606
* 나는 리더라기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739			.605
* 나는 확실히 자신감이 부족하다.	.735			.632
*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할 거라고 기대한다. (R)	.700			.492
* 나는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될 대부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다 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R)	.696			.491
* 나에게서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없다.	.653			.471
* 나는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588	.379		.493
* 나는 논쟁에서 쉽게 포기한다.	.487	.355		.363
* 나는 어떤 주제에 관해 이미 마음을 결정한 뒤에도 남들을 따라 쉽게 내 생각을 바꾸곤 한다.	.451	.407		.389
* 나는 남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렵다.		.729		.579
* 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마음 상하게 할까봐 매우 걱정한다.		.669		.458
* 사교적 상황에서 나는 남들을 너무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339	.625		.513
* 나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가 두렵다.		.617		.476
* 나는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최선이 아닌 일을 하기도 한다.		.612		.407
* 나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하기가 어렵다.		.575		.377
* 나는 남들의 거부 표시에 매우 민감하다.		.573		.344
* 나는 남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사과하는 편이다.		.487		.242
*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매우 괴롭다.		.419	.344	.301
* 나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381		.205
* 누군가 나 때문에 당황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사과하고 싶어진다.		.323		.159
* 아주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면 나의 중요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757	.575
*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739	.565
*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기가 어렵다.			.719	.519
* 나는 남들로부터 호감과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635	.447
* 남들로부터 고립되면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633	.420
* 나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안심이 된다.			.596	.409
*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자문을 구한다.			.457	.221
* 나는 인간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R)			.433	.288
*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걱정하지 않는다. (R)			.309	.237
고 유 근 (eigen value)	6.76	3.66	2.49	
설명량	22.5%	12.2%	8.3%	43.0%

주: 전체 Cronbach's $\alpha=.87$, (R) 표시는 역채점 문항, 요인부하량 .30 미만은 생략함.

부록 4. 신뢰성 척도의 요인 구조

문 항	공정성 ($\alpha=.63$)	이타성 ($\alpha=.66$)	h^2
*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남의 눈이 두려워 그 러는 것이다. (R)	.726		.583
* 사람들은 대개 자발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을 속으로는 싫어한 다. (R)	.649		.425
* 사람들은 속마음과 달리 괜히 서로를 염려하는 체한다. (R)	.625		.546
*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세상은 더욱 각박해질 것이다. (R)	.519		.388
*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R)	.480	.302	.432
* 들키지 않고 공짜로 영화구경을 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대 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R)	.469		.249
*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세상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 니다. (R)	.370	.366	.283
*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망설이 지 않고 가던 길을 돌려 도와줄 것이다.		.789	.633
* 사람들은 한적한 시골길에서 고장난 차를 발견하면 대체로 멈춰 서서 도와줄 것이다.		.705	.628
* 사람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마련이다.		.684	.629
*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생활철학이다.		.459	.343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들에게 해주어라”는 좌우명을 따른다.	.332	.345	.590
고 유 근 (eigen value)	3.29	1.39	
설 명 량	27.4%	11.4%	38.8%

주: 전체 Cronbach's $\alpha=.76$, (R) 표시는 역채점 문항, 요인부하량 .30 미만은 생략함.

부록 5.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하위 요인간 상관 관계

	INDI	RELA	IN-f1	IN-f2	IN-f3	RE-f1	RE-f2
INDI							
RELA	.21***						
INf1	.84***	.01					
INf2	.81***	.38***	.53***				
INf3	.76***	.12*	.48***	.37***			
REf1	.33***	.86***	.11	.46***	.22***		
REf2	.02	.83***	-.07	.23***	-.13*	.51***	
REf3	.12	.52***	-.04	.08	.25***	.26***	.28***

주: 1. * $p<.05$, ** $p<.01$, *** $p<.001$, N = 273

2. INDI-개별성 전체, RELA-관계성 전체, INf1-개별성 1 요인, INf2-개별성 2 요인, INf3-개별성 3 요인,
REf1-관계성 1 요인, REf2-관계성 2 요인, REf3-관계성 3 요인

A Study of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Individuality-Relatedness Scale

Dong-Jik Kim and Seong-Ye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Western cultures conceive of the self as an independent entity containing idiosyncratic disposition. So psychologies of Western cultures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ty, autonomy, independence, achievement motivation, and identity as essential components of psychological maturity. And then Western overemphasis on individualistic values has led to consider relatedness as a weakness or even as pathological. However, many writers agree that the relation of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is orthogonal rather than unidimensional. In spite of many writers' agreement, there was no attempt to measure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as multidimensional variables. We construct Individuality-Relatedness Scale on the assumption that two variables are orthogonal dimensions rather than opposite poles of one dimension. We fou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r=.21$, $p<.001$). And each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ity and self-esteem, and between relatedness and self-esteem was significant($r=.42$, $p<.001$; $r=.39$, $p<.001$). Dependency correlated only with individuality($r=-.75$, $p<.001$). Both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loneliness($r=-.39$, $p<.001$; $r=-.67$, $p<.001$). We assigned each participant to one among four groups on the base of median values of Individuality-Relatedness Scale and foun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self-esteem, dependency, and loneliness.